

비관세장벽 모니터링(일본/도쿄지사)

I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 [2022.01월]

1. 청량음료수(생수) 식품규격기준 일부 변경

가) 개정 개요

- 청량음료수에 대한 규격기준은 그동안 수도법 제4조에 의한 수질기준 및 Codex 국제기준에 상응하도록 순차적으로 개정해 오고 있는 바, 금번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육가크롬 등에 대한 식품건강 영향 평가에 근거하여 청량음료수의 규격기준을 개정함

나) 개정 내용

- 청량음료수 성분규격에서 규정하는 “미네럴 워터류(물만을 원료로 하는 청량음료수를 말함) 중에서 살균 또는 제균을 하지 않은 것”의 기준치에 대해 아래표와 같이 개정함

물질명	개정후	개정전
육가크롬	0.02mg/1 이하 일 것	0.05mg/1 이하 일 것

- 청량음료수 성분규격에서 규정하는 “미네럴 워터류 중에서 살균 또는 제균을 하는 것”의 기준치에 대해 아래표와 같이 개정함

물질명	개정후	개정전
육가크롬	0.02mg/1 이하 일 것	0.05mg/1 이하 일 것
클로로아세트산	0.02mg/1 이하 일 것	기준치 없음
디클로로 아세트산	0.03mg/1 이하 일 것	기준치 없음
트라이클로로 아세트산	0.03mg/1 이하 일 것	기준치 없음
Di-2-ethylhexyl phthalate	0.07mg/1 이하 일 것	기준치 없음

다) 적용기일

- 고시일인 2021.6.29.부터 적용하되, 미네럴 워터류(물만을 원료로 하는 청량음료수를 말함) 중에서 살균 또는 제균을 실시하는 제품에 대해 클로로아세트산, 디클로로 아세트산, 트라이클로로 아세트산, Di-2-ethylhexyl phthalate의 성분규격에 대해서는 고시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하는 날 이전에 제조되거나 또는 수입된 청량음료수를 가공, 사용, 조리, 보존,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본 개정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.
- 미네럴 워터류 중에서 살균 또는 제균을 하지 않은 것 및 미네럴 워터류 중에서 살균 또는 제균을 실시하는 제품에 대한 육가크롬의 성분규격에 대해서는 고시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하는 날 이전에 제조되거나 또는 수입된 청량음료수를 가공, 사용, 조리, 보존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종전대로 할 수가 있다.

라) 시사점

- 한국산 대일 수출 생수의 경우 종전에 받은 1년 이내 유효한 검사증이 있더라도 법개정 시행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새로이 시험 검사를 받아야 함으로 주의가 필요시 됨
- 검사성적서는 일본정부가 인증하는 한국내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것도 유효함으로 사전에 한국내 검사시 일본 수입시에 검사 대기를 하지 않고 바로 통관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음

※ 자료원 :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홈페이지

<https://www.mhlw.go.jp/content/11135200/000799427.pdf>

1. 캐나다산 김치 대장균 검출에 따른 일본 지역 영향 조사(2.9자)

- 캐나다에서 생산되어 캐나다내에서 유통되는 김치에서 대장균 검출되어 리콜된 사례와 관련하여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도 해당 내용이 게재됨으로 인해 일본내 한국산 김치 취급 업체 등이 해명에 나서는 등 영향

<https://korea-economics.jp/posts/22020403/>

- 일본 유통업체에서는 수입처 및 납품업체에 대해 해당 김치와의 관련 여부 등 안전성 확인 문의 쇄도
- aT에서 조사 결과 한국산이 아닌 현지 캐나다 공장에서 생산된 현지용 김치로 확인

2. 시사점

- 문제가 된 제품은 한국산이 아닌 현지 캐나다 생산 김치라는 조사결과를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등에 신속히 정보 공유함으로서 한국산 김치의 안전성 확보기여

1.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

-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
 -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2.1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모두 47건이 발생함(식기류 제외)
 - 1월의 한국산 식품위반사례는 젓갈류 등 수산물에서 대장균균 양성 위반사례등 4건이 발생하였으며, 믹스커피에서 대장균균 양성 위반 등 계 5건의 위반이 발생함
 -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잔류농약 및 항균제 등 위반사례가 11건(23.4%), 아플라톡신 위반이 9건(19.1%), 대장균균

양성 및 세균수 기준치 초과 등 위생위반이 21건(44.7%), 첨가물 위반이 5건(10.6%), 기타 1건(2.1%) 으로 나타나 위생위반이 제일 많은 건수를 차지함

2.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

○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1월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11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중 위반건수가 제일 높았으며,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율중 23.4%를 차지함
- 붉은 땅콩 등에서 아플라톡신 3건, 샐러드믹스, 우영 당근 믹스 등에서 잔류농약위반 3건, 계란 샐러드 튀김 등에서 E.coil 양성 등 위생위반 4건 등 계11건의 위반이 발생함

○ 베트남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냉동연어에서 대장균군 위반 등 위생위반 2건, 신선바나나에서 잔류농약 위반 등 잔류농약 위반 4건, 청량음료수 등에서 지정외 첨가물 사용으로 인한 3건의 위반 등 총 11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

○ 인도네시아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야채가공품 및 향신료에서 아플라톡신 1건, 새우튀김 등 냉동식품류에서 E.coil 양성 등 위생위반이 4건 계5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

○ 타이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정미(쌀)에서 곰팡이 발생 등 위생위반이 3건, 신선망고등에서 2건의 잔류농약 발생 등 계 5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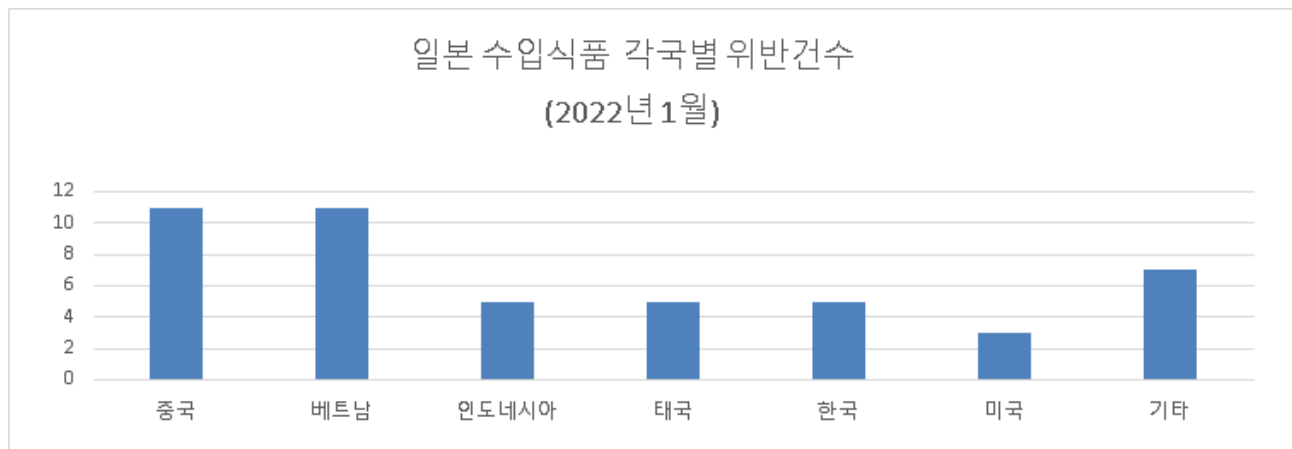
○ 한국산 수입식품 위반사례

- 한국산 식품위반사례는 오징어 젓갈, 과메기, 해초면 등에서 대장균군 양성 등 위생위반이 3건, 믹스커피류 등에서 대장균군 양성 등 모두 위생위반이 5건 발생함

<표1>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

국가명	위반건수	위반율	잔류농약 및 항균제등	아플라톡 신	위생	첨가물	기타	위반합계
중국	11	23.4	3	3	4	1		11
베트남	11	23.4	4	1	2	3	1	11
인도네시아	5	10.6		1	4			5
태국	5	10.6	2		3			5
한국	5	10.6			5			5
미국	3	6.4		1	2			3
기타	7	14.9	2	3	1	1		7
합 계	47	100.0	11	9	21	5	1	47
비율(%)			23.4	19.1	44.7	10.6	2.1	100.0

<표2>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



※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